

③ 국내업체 동향

국내기업, “M&A로 회사성장 기약”

‘1+1=3’ 기대치 불구, 일부 ‘파열음’ ... 異種간 결합 ‘눈길’

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5년 한해 유가증권시장법인과 코스닥시장법인들의 기업 인수합병이 러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84개에 비해 44.0% 증가한 121개사가 M&A를 완료하거나 진행중이라는 것.

특히, 코스닥시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이 전체 121개중 80개사로 유가증권시장법인 41개사의 2배 가까이 달했다. 이는 전년도 코스닥시장법인 47개사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사유별로는 합병 62개사, 영업양·수도 26개사, 주식교환 33개사로 나타나 기업간 M&A에 있어서 영업양수도나 주식교환 보다는 합병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 | 박영주 기자(모바일타임스)

2006년, 올 한해도 기업간 인수합병(M&A) 사례가 잦았다. 인수합병을 통해 결과적으로 ‘몸집 키우기’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

작년에 이어 최근, 부쩍 비상장 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우회상장’이 많았다는 점 역시 눈을 끈다.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된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복잡한 상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식 시장에 ‘입성’ 하는 이러한 형태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 해 IT업계의 굵직굵직한 인수합병 사례로 회자되는 것으로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엠파스 인수’ (10월), ‘하나로텔레콤의 셀러TV 인수’(2월), ‘제이엠피의 네오웨이브 인수’ (8월), ‘유비스타의 온세통신 인수’ (8월), ‘NHN의 첫눈 인수’ (6월) 등을 꼽을 수 있다.

‘성공신화’를 기대하며 벌어진 업체간 M&A는 일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엔 이른 감도 적지 않은 상태.

M&A 유형별로는 ▲동종(유관)업체간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 사례가 제일 두드러진다. 아울러 ▲사업 다변화를 기대하며 비IT기업이 IT업체를 인수하는 식 이종업체간 M&A ▲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 ▲국내기업의 해외업체 인수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해외업체의 국내기업 인수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IT기업을 정점으로 유형별 업체간 인수합병 사례를 정리해봤다.

동종(유관)업체간 인수

◆SK컴즈, 엠파스 인수=SK커뮤니케이션(약칭 SK 컴즈)이



경쟁업체인 엠파스를 인수키로 한 것은 지난 10월 19일. 이날 엠파스 박석봉 대표와 SK커뮤니케이션즈 유현오 대표, 코난테크놀로지 김영섭

대표 3인은 자리를 같이 하고 박석봉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던 엠파스 지분 19.4%와 자사주 5% 등 총 24.4%를 SK커뮤니케이션즈에 매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372억원.

SK커뮤니케이션즈는 추가로 450억원 규모의 엠파스 전환

사채를 인수, 향후 최대 43%까지 지분을 확대할 방침이며, 총 소요자금 규모는 820억원 규모이다. 코난테크놀로지의 지분 29.5%는 엠파스와 SK커뮤니케이션즈 양사가 공동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이번 SK컴즈의 엠파스 인수는 무엇보다 기존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순의 국내 검색포털 시장에 일대 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사실상 네이버의 독주체제도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3사의 인수합의로, 향후 검색 기술은 엠파스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SK컴즈가 각각 맡게될 전망이다. 엠파스측은 “이번 계약식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검색 기술은 엠파스가 주가 될 것”이라며, “3~6개월 후면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 싸이월드, 통 등의 콘텐츠들을 엠파스에서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6개월 내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선보이고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NHN(네이버), 첫눈 인수=이에 앞서 국내 최대 포털 네이



버를 운영하는 NHN은 지난 6월 29일, 검색업체 ‘첫눈’의 지분 100%를(총 200만주, 액면가 500원) 35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NHN측은 첫눈의 지분 인수를 통해 자사의 해외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 장기적으로 해외 검색서비스 시장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눈을 인수한 NHN과 코난테크놀로지를 인수한 SK커뮤니케이션즈간 검색 시장을 둘러싼 일대 격돌이 불가피한 실정. 나아가 두 업체 모두 해외시장 공략을 공언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로텔 ‘하나TV’, 셀러TV 인수 덕?=하나로텔레콤이 최근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VOD(주문형비디오)서비스 ‘하나TV’는 기실 IP VOD 서비스 전문업체인 ‘셀러TV’



인수를 통해 가능했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월, ‘셀러TV’를 인수, 이를 기반으로 일명 ‘TV 포털 서비스’인

‘하나TV’를 본격 제공했다. 이때 셀러TV 지분 65%(78만주)를 55억원에 인수한 것.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지분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셀러TV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연내 130억원(증자액의 65%)을 셀러TV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셀러TV는 TV 포털/IP TV 서비스 플랫폼 및 IP 셋톱박스(STB)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공중파와 IP TV 혼용 서비스 등에 관한 특허를 바탕으로 TV기반 주문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업체.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계약으로 실시간으로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종합미디어 회사’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코오롱아이넷, IT시스템 관리업체 ‘베니트’ 인수=코오롱아이넷은 코오롱그룹의 IT 시스템 관리를 맡아온 베니트를 인수했다. 베니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아이넷이 CA로부터 나머지 지분 중 40%를 추가 매입, 총 70%의 지분을 보유해 베니트의 최대주주가 된 것.

코오롱아이넷은 베니트 인수로 코오롱그룹의 SM 사업을 비롯한 SI/SM 사업에 진출하게 됐으며, 기존 IT시스템 유통 및 솔루션 사업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 토털 IT 서비스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코오롱아이넷은 올해 들어 구(舊) 코오롱인터내셔널과 합병, 코리아이플랫폼 지분 인수, 베니트 지분 인수 등 IT기반의 글로벌 토털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붙여가고 있으며, 이로써 사업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베니트는 코오롱아이넷의 자회사로서 기존 코오롱그

롭 SM 및 다른 다양한 IT서비스 관련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NHN, 스토리지 전문업체 인수=NHN은 데이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스토리지 전문 업체 데이터코러스의 지분 100%(총 63,125주, 액면가 5000원)를 21억 8000만원에 인수한다고 10월 9일 밝혔다.

데이터코러스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원천 기술을 국산 기술로 독자 개발해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로 데이터 다중화와 클러스터링 기술을 통해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 중단 없이 서비스 품질을 보장,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성과 성능을 이미 검증 받은 바 있다.

◆도어록 전문기업, '업계 2위' 업체 인수=네트웍도어록 및 스마트홈 전문기업 아이레보는 디지털도어록 2위 기업인 싸이트론을 지난 9월 인수, 덩치를 키웠다.

아이레보는 현재 '게이트맨'을 고가 브랜드로 유지하면서 이번 인수를 통해 중저가제품까지 라인업을 확대, 원가경쟁력 및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 즉 양사가 고유브랜드 및 독립적인 경영은 유지하면서 대리점을 공동으로 활용하면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건전한 경쟁을 추구할 수 있어 매출증대에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異種)업체간 인수

◆제이엠피, 네오웨이브 '먹다'=이 분야에서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 경영권 분쟁의 시발은 지난 8월. 금형업체인 제이엠피(JMP)가 그달 22일, 네오웨이브 최대주주인 한창으로부터 최대지분(38.46%)을 인수,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 데 대해 네오웨이브가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제이엠피와 "적대적 M&A"를 주장하는 네오웨이브간 공방은 제이엠피는 같은 달 30일, 네오웨이브가 총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직후, 제이엠피가 공시를 통해 네오웨이브를 계열회사로 추가함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3일, 네오웨이브는 "지난 9월 4일 네오웨이브에 대해 제이엠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네오웨이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가 이날, 지난 8월 30일 네오웨이브 이사회 결의로 진행 중인 신주발행을 금지하기 위해 제이엠피가 제출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했다는 것.

지난 11월 네오웨이브는 경영권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자문회사인 김스브릿지와 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이엠피는 네오웨이브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이번 분쟁을 종식시킨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11월초 현재, 이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유비스타, 온세통신 인수 '웃었다'=반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온세통신을 인수한 유비스타는 웃었다. 우여곡절 끝 서비스 사업자인 온세통신을 인수한 통신 단말/장비 업체 유비스타는 온세통신 인수 후, 보다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면서 온세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하나로텔레콤에 양도한 것.

◆엔터테인먼트, IT를 만나다=영화제작, 배급, 상영, 매니지먼트에 이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선언한 후 간접적으로 신규사명을 홍보해 오던 이노츠가 지난 3월, '프라임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공식 변경했다.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올 초 엘제이필름 인수 후 3월 경기도 한류우드 테마파크사업 우선협상자에 선정됐으며, 모바일 게임업체인 지오인터랙티브, 영화제작사 코리아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선 바 있다.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이보다 앞서 국내 유명 모바일 게임 업체인 지오인터랙티브의 51.16% 지분을 인수, 엔터테인먼트의 IT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향후 자체 제작, 배급하는 영화를 비롯한 모든 한류 콘텐츠를 모바일게임, 모바일 화보, 음원서비스 등으로 개발해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